

세계YMCA&YWCA 국제친선 및 기도주간 연합예배



일시 2025. 11. 10.(월) 11:00

장소 서울YWCA 대강당

주관 (사)서울YWCA



세계YMCA&YWCA 국제친선 및 기도주간 연합예배

희년, 150년 기도 실천의 여정

인도 : 오점희(서울YWCA 국장)

반주 : 박진선(서울YWCA 부장)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세계 YMCA·YWCA 기도주간 150주년을 기념하며,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잇는 사랑과 평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사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사랑과 정의, 평화를 살아내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함께 예배합니다.

■ 예배로 나아가는 기도 - 인도자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자유와 회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묵인 자가 풀리고, 빛진 자가 자유하며, 땅과 생명이 쉼을 얻는 희년의 복을 오늘 예배의 은총 가운데 충만히 경험케 하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기도가 머물지 않고 행함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빛을 진 자로서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실천하며, 겸손히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이웃, 청년과 여성, 난민과 소수자, 창조세계의 신음에 응답하게 하시고, 우리 손과 발로 평화와 화해를 심는 용기를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함께 드리는 기도 - 인도자 / 다같이

인도자 : 생명의 근원이시며, 창조자이시며,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 당신과도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인도자 :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다같이 : 오늘은 하나님이 행하신 날입니다.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기념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28

R. Robinson, 1758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삼상 7:12)

NETTLETON: 8.7.8.7. D.

Wyeth's Repository of Sacred Music, 1813

보통으로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3.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되네

한량 없이 자비 하심 측량 할 길 없도 다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의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찬양

■ 함께 나누는 기도 - 다같이 / 일어서서

①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평화의 기도) - 서울YWCA (다같이)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 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됨을 깨닫게 하소서.

② 우리의 호흡으로 기도하기 - 한국YWCA연합회 (다같이)

인도자 : 우리의 창조주께서 처음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 숨결은 오늘도 우리 안에, 세상 가운데 움직이십니다.
기도하며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함께 고백합니다.

다같이 : **(들이마시며)** 우리는 고립에 저항합니다.
(내쉬며) 우리는 절망에 맞서 싸웁니다.
(들이마시며) 우리는 우리의 몸에 뿌리내립니다.
(내쉬며) 이 숨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들이마시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조용한 음성을 기억합니다.
(내쉬며)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③ 주기도문 - 한국YMCA전국연맹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 성경 봉독 - 한국YWCA연합회 / 한국YMCA전국연맹

[시편 119편 33-40절]

33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34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35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36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37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38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39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40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로마서 13장 8-14절]

8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1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12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 특송 -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서울YWCA,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연합찬양팀)

■ 말씀 선포 - “사랑의 빛”

- 김지선 목사 (미국 인디애나주 Earlham School of Religion 신학 교수 /
 미국장로교 목사)

■ 묵상 및 집중 기도 - 인도자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마무리하며,
 세상의 환희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 시간에만 조용히 머무르려 하지만,
 우리의 바람은 이 ‘고요히 듣는 연습’이 일상의 리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루와 세상 속에서
 소음과 분주함, 요동치는 세상 한가운데서
 속삭이듯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훈련을 합시다.

(이후 인도자는 다음의 문장을 천천히 호흡하며 낭독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잠시 멈추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

“가만히 있어 내가 있음을 알지어다.”

(잠시 멈춤)

“가만히 있어 알지어다.”

(잠시 멈춤)

“가만히 있어라.”

(잠시 멈춤)

“존재하라.”

(2분간 침묵 유지 - 길게 느껴질 수 있으나 함께 연습하는 것이 중요함).

■ 함께 드리는 찬양 - 영광을 돌리세 / 다같이

영광을 돌리세

KaMU 고향원

영 광을 돌-리 세- 우 리 하나-님 께- 존 귀와 위-엄 과-
 능 력 과 아 름 다 움 만- 방 에 모 든 신 은 헛 된 우 상-이 나-
 오 직 하 늘 의 하 나 님 그 영 광 찬 양 해 - 주 님 의
 영 광 모 든 나 라 위 에 - 주 님 의 영 광
 온 세 계 위 에- 하 늘 에 계 신- 우 리 아 버 지 영 광 찬 양 해- 우 리
 주 님 나 라 영 원 하 리 라 - 우 리 주 님 뜻 은 이 뉘 지 리 라

■ 봉헌 - 미얀마 '희망의 학교' 헌금

군부 쿠데타로 인해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가 사라진 미얀마에서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잃고 공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희망의 학교'는 미얀마의 청소년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다시 배우고 꿈꿀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올해 개교를 앞두고 기숙사 등 필수 인프라 건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봉헌금 전액은 '희망의 학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국제 시민사회 연대 기구 버마 플랫폼」에 기부됩니다.

■ 축도 - 김지선 목사

■ 폐회 및 광고